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소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주일 예배 봉사위원

	12. 18	12. 25	01. 01
대표 기도	장래황 성도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성경 봉독	장래황 성도	김영희 권사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2월 축복인사 - 구주 예수님은 반드시, 꼭, 다시 오십니다(공통적인 고백)

1.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2.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 달력 배부 - 2023년 달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김미자 권사, 이수현 집사 헌물)
4. 예배당 실내 온도 -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온도를 낮췄습니다.
5. 졸업연주 - 강희수 자매(16일, 금 오후 5시)
6. 방문 - 강희수 자매(한국)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3. Adven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118장	다같이
기 도 Gebet	-----	노지민 성도
성경봉독 Predigttext	시 37 : 9 - 13(구p828) (Psalm 37:9-13)	노지민 성도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가족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 교 Predigt	견딜 수 있는 힘	이상호 목사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장래황 성도

†기도제목

1.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음을 믿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전도, 구제, 봉사, 영성훈련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되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선을 행하는 기쁨

Africa의 Eswatini(2018년 4월 Swaziland에서 국호를 바꿈)의 선교센터에 강도 네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내놓으라며 권총으로 남편의 이마를 때리고 구둣발로 무릎을 찡습니다. 남편의 정강이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심지어 강도 중 한 명은 돌로 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남편이 그들에게 300달러 정도 되는 현지 돈을 주며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들은 우리를 더 이상 해치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남편과 나는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친 부위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갔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의사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때 남편은 의사가 턱없이 부족한 현지 상황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은 에스와티니에 기독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전쟁 현장으로 선교를 다니면서 폐병에 걸려 시달리자 지인이 보험과 연금을 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금은 목돈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할까 생각하다가 내키지 않아서 기독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모두 헌금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할가분할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나누어 주는 사랑과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우리와 공유해주시고 이 땅에 받을 어떤 상과도 비교되지 않는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든지 하세요 / 박상원 선교사
(에스와티니 선교사)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말씀의 예언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2. 어려운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온유할 수 있을까요?